

재산과 자유 협회 설립 5주년 기념 연설

The Property And Freedom Society — Reflections After Five
Years

Hans-Hermann Hoppe*

번역: 김경훈 연구원 (미세스 코리아)

1 ‘제한된 정부’와 ‘최소국가’라는 환상	2
2 정부와 야합하는 ‘어용 자유주의’	5
3 자유주의 전략은 반국가주의에 있다	7
4 보수주의는 경제학이 없다	9
5 보수주의는 일관성이 없다	12
6 자유주의 전략에 필요한 것	15

*한스-헤르만 호페는 살아있는 오스트리아학파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세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세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칼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세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형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세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정부’와 ‘최소국가’라는 환상

내가 2000년대 초반에 재산과 자유 협회(The Property and Freedom Society)의 설립을 모호하게나마 처음 구상했을 당시, 나는 두 개의 리버테리언 협회로부터 직접적인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첫번째 교훈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47년에 설립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에 관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왔다.

1990년대에, 나는 프랑스 칸,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에 세 차례 연사로서 초청받았다. 그때 마다, 나는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공격하고, 민주주의가 군주제보다도 열등함을 논증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최소국가(minimal state) 개념이 자기모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없는 아나키스트 자연적 질서를 전파하였다. 나의 이러한 모습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사람들에게 다소 가증스럽고, 불경하고,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의 즉각적인 여파에 의해 설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몽펠르랭과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그들이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총명하고 흥미로운 많은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총회는 ‘자유시장’과 ‘제한된 정부’를 믿는 싱크탱크 및 재단, 그들이 후원하는 수 많은 학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부자 및 후원가를 위한 호화로운 유람 여행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미국인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워싱턴 D.C.와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징해보자면, 레이건, 아버지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공화당 행정부의 복지-전쟁 국가 정치학(the welfare-warfare state politics)의 주요 정책 입안자 겸 브레인이었던,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오랜 대표 에드 풀너(Ed Feulner)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회장직과 회계 책임자를 역임했다. (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이었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각과 마주했다. 하이에크의

스승이자 친구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하이에크가 초대한 사람들의 면목을 보고 몽펠르랭 계획에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도대체 어떻게, 국가주의자-간섭주의자로 확증된 사람들(certified state-interventionists)과 함께 자유롭고 번영하는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미제스는 초기에 가졌던 의심에도 불구하고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다행스럽게도,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첫 총회에서, 미제스는 연사와 패널들을 사회주의자 무리(a bunch of socialists)라고 비난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본질적으로, 미제스의 경험은 내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 받은 첫 인상과 같다. 이 인상은 추후에 옳았음이 확인되었다. 모든 우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몽펠르랭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사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역주: 우파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버테리언들] 초청받아 연설을 하기도 하지만, 총회의 지배적이고 허용가능한 담론의 범위는 공인된 국가주의자-간섭주의자 수준, 즉 정부가 후원하는, 혹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재단과 싱크탱크의 대표, 중앙은행의 위조지폐범, 종이화폐 애호가, 그리고 정부 안팎의 다양한 교육관료(educrats) 그리고 연구관료(researchocrats) 등에 국한된다. 예컨대, 미국의 제국주의나 부시의 전쟁범죄 따위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성스러운 홀에서 논의된 적 없고, 중앙은행이 저지른 금융범죄나 민감한 인종적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전무하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하이에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는 1992년에 사망하기 훨씬 전 부터 이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가 이 모양이 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미제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1960년대에 하이에크가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을 출판하며 마침내 명백해진 사실이지만, 하이에크 자신부터가 간섭주의자로 증명된 사람이다. 이 책의 유명한 3부에서, 하이에크는 스칸디나비아와 독일 유형의 중도적 사회민주주의자라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간섭주의로 가득찬 ‘자유 사회’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1979년, 하이에크가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당시 서독

총리였던 사회민주당 소속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하이에크에게 “우리는 이제 모두 하이에크주의자다”(we are all Hayekians now) 라고 선언하는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이는 빈 말이 아니었고, 사실이였다. 슈미트는 정말로 진심이였다.

이런 점에서 내가 깨달은 점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개탄스러운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였다. 오히려 그들의 현 상황은, 사실 하이에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제스 역시 저지른 근본적인 이론적 결점, 즉 최소국가를 옹호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였다.

이 결함은 단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만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였다. ‘최소 국가’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이 지배하는 서구세계의 소산으로서 발생한 ‘제한된 정부’ 싱크탱크 산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그러한 기관들의 ‘국제적’ 관계를 주선하는 기능을 담당했을 뿐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브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그리고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다른 고관들이 추진하고자 노력했던 ‘제한된 정부’ 혹은 ‘헌법에 입각한 정부’라는 목표는, 오늘날 모든 ‘자유시장’ 싱크탱크가 목표로 선언한 것이지만, 불가능한 목표이다. 제한된 정부의 실현은 기하학에서 원적문제(Squaring the circle) 만큼이나 불가능한 목표이다. 특정 영토에 대한 법과 질서의 독점권을 확립하고 나서, 이 독점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화폐 생산에 대한 영토적 독점을 확립한 독점자가, 더 많은 화폐를 인쇄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애당초 우리는 그런 독점자를 설립해서도 안된다.

일단 입법에 대한 영토적 독점권을 국가에 부여한 상황에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목표이며 불가능하다. 경쟁(즉, 어떤 종류의 독점적 특권도 우선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부 수립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이 변한다고 가정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가정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시작과 함께 일어난다고 믿는 인간의 기적적인 변화와 매우 흡사하다.)

총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제한된 정부는 환상의 목표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다.

정부와 야합하는 ‘어용 자유주의’

하이에크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전략은, 정말로 실패해야만 했다.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싱크탱크들과 그들의 국제 모임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자신들의 의도대로(아니면 그저 가식이었을까?) 개혁과 자유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복지-전쟁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는 매우 방대하다. 전형적인 리버테리언 싱크탱크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혹은 그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그들의 주된 임무가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의 조치와 발표에 반응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언을 한다.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정치인, 정부관료, 로비스트 등의 외부인과 자주 접촉하는데, 그들은 커넥션이 있는 기자들과 함께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회의, 브리핑, 연회, 각테일 파티에 단골로 참석한다. 싱크탱크와 정부 간에는 꾸준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한된 정부 ‘산업’의 자도자들은 스스로가, 권력 엘리트이며 지배계급의 저명한 일원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제한된 정부 운동이 계속하여 성장하는 유망한 산업이었다는 점이다. 리버테리언 싱크탱크의 연간 지출은 현재 수억 달러에 달하며, 지금까지 총 수십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정부 지출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대신에, 정부 지출은 언제나, 끊임없이 증가하며 이제는 아찔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한된 정부의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업계의 실패는 가시적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그들의 실패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오히려 더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보상받는다. 싱크탱크의 업무가 실패하면 실패할 수록,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자유시장 싱크탱크 산업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한다.

하이에크를 비롯한 제한된 정부 옹호자들과 자유시장 싱크탱크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이러한 모순적 현상을, 우연의 일치라고 어떻게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유시장 싱크탱크의 지속적인 자금 및 운영 성장이 없었다면, 정부 지출은 더 심각했으리라 주장함으로써 훌륭하게 변명하곤 한다.

요컨대, 자유시장 싱크탱크 산업은, 과거 혹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있던 상관없이, 그들의 성공과 실패 유무와 별개로 계속된다.

물론 이 당혹스러운 사실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다. 만약 국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체계적인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입법과 화폐발행의 지역적 독점자로서, 국가는 성장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진다. 즉 ‘불태환’ 법과 ‘불태환’ 화폐를 이용하여 사회와 사회적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하고자 한다. 불태환 법(fiat law)을 통해,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위협하고, 처벌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독특한 권력을 가진다. 그리고 불태환 화폐(fiat money)를 통해, 국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지지를 이끌어내고, 뇌물을 수수하고,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가는 이렇듯 특별한 기관이며, 제한된 정부 싱크탱크 산업의 도전에 대처하는 법적, 재정적 수단 역시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리버테리언보다 훨씬 더 가공할 상대였던 조직화된 종교기관마저 성공적으로 포섭하였다.

그리고 자유시장 싱크탱크 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목표는, 종교를 그렇게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달성하기 쉬운 문제이다. 우선, 국가는 자유시장 관계를 담당하는 자체 관료조직을 설치한다. 그 후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NGO를 초청하고, 후원하고, 자금과 고용을 보장해주며 그들을 유인하기만 하면 된다. 위협과 무력에 의존할 필요 없이, 이러한 유화조치만으로도 자유시장 싱크탱크 산업과 리버테리언 지식인들을 포섭하기에는 충분했다. 지식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낮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포섭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시장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는 ‘경제적으로 계몽된’ 제도로서의 이미지, 자체적 합법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적인 존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성장을 위한 여지를 더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리버테리언 싱크탱크를, 단지 자신의 힘을 증강시키는 또 다른 매개체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모든 소위 ‘비정부단체’의 사례와 본질적으로 같다.

자유주의 전략은 반국가주의에 있다

내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만약 우리가 국가의 힘을 제한하고 싶다면, 그들과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민주주의자 등 좌파가 국가에 접근하고 국가 기관으로 향하는 것(marching through its institutions)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들은 국가의 힘이 더 커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즉, 좌파는 법과 질서의 지역적 독점자로서의 본성을 가진 국가가 하고 싶어하는 무엇이든지 찬성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국가의 힘을 완전히 역행시켜 국가없는 자연적 질서(stateless natural order)를 확립하고 싶거나, 아니면 오직 급격하게 혹은 과감하게 현재의 상태를 ‘영광의 시대’ 혹은 ‘황금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한다면, 좌파처럼 국가를 이용하는 전략은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낳게 된다.

어쨌든, 그러한 목표는 국가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모색하는 대신에, 국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그것의 하수인과 선전꾼들을 진행과정에서 명백하게 배제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와 대화하고 그 하수인들과 교섭하는 것은, 국가에 합법성과 힘을 실어준다. 국가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경멸하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 하수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제도에 침투하는(system-immanent)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타와 그 후손들의 표면적 목표, 즉 복지-전쟁 국가 체제의 개혁과 자유화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그들은 [역주: 제도 밖에서 저항해야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도에 침투함으로써 이룩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패했으며, 정치적 기득권층으로 포섭되어 국가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구상한 협회, 즉 재산과 자유 협회는 제도를 초월하는(system-transcending) 전략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재산과 자유 협회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배적인 국가 문화와 기관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을 (지식인, 교양있는 일반인, 심지어 보통사람까지) 끌어들이 수 있는 반-국가 반문화(anti-statist counterculture)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략적인 복지-전쟁 국가 체제의 개혁과 궁극적인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이 지적 반문화의 국제적 선봉장(avant-garde)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이 반문화의 중심에는 국가 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이 있다. 법과 질서의 지역적 독점자인 국가는 스스로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 기적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며, 반대로 영원한 위협이 된다. 국가는 노예와 폭정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이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재산과 자유 협회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목표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자유롭고 국가없는 자연적 질서의 법적, 경제적, 인지적, 그리고 문화적 요건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술한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목표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국가의 가면을 벗기하고자 한다. 살인자(murderers), 약탈자(plunderers), 도적(thieves) 무리가 운영하며, 망나니(executioners) 선전가(propagandists), 아첨꾼(sycophants), 사기꾼(crooks), 거짓말쟁이(liars), 미치광이(clowns), 돌팔이(charlatans), 천치(dupes), 그리고 유용한 호구(useful)들로 가득찬 기관인 국가의 모든 더럽고 썩은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다.

완전한 폭로를 위해 한 마디 첨언하자면, 하이에크의 개인적 추천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 입회한 나의 친구 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Jesus Huerta de Soto)의 권유 때문에, 나는 마지못해 1990년대 중반쯤 몽펠르랭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당시 몽펠르랭의 명예회장이었던 아서 셸던(Arthur Seldon)은 내 회원 자격을 승인했음에도, 몽펠르랭은 나를 거부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바는, 내가 그런 협회에 결코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만 했다.

완전히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특히 머레이 라스바드의 친구였던 레너드 리조(Leonard Liggio)가 나의 가입 신청을 듣고나서 가장 강력하게 승인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반대가 심했던 자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신도들의 독일인 대표자 크리스티안 바트린(Christian Watrin) 였다. 리조와 바트린 모두 훗날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보수주의는 경제학이 없다

나의 두번째 경험은, 1989년에 리버테리언 머레이 라스바드와 보수주의자 토마스 플레밍(Thomas Fleming)이 설립한 존 랜돌프 클럽(John Randolph Club, JRC)에 관한 것이다.

이 협회는 애초부터 훨씬 더 내 마음에 들었고, 한동안 나는 존 랜돌프 클럽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나는 라스바드 1995년 서거한 직후 그 협회의 분열, 즉 라스바드주의자들이 존 랜돌프 클럽을 집단으로 탈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나는 존 랜돌프 클럽의 초기 시절을 즐거운 추억으로 회상한다. 그리고 내 오랜 존 랜돌프 클럽 동료들 중 상당수, 즉 피터 브림로(Peter Brimelow), 토마스 딜로렌조(Tom DiLorenzo), 폴 고트프리트(Paul Gottfried), 월터 블락(Walter Block), 저스틴 레이먼도(Justin Raimondo), 유리 말체프(Yuri Maltsev), 그리고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 등이 이곳 터키 보드룸에서 열리는 재산과 자유 협회에 참석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나의 친구 조 소브런(Joe Sobran) 역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싶어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해 그러지 못했다.

‘국제적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와는 대조적으로, 존 랜돌프 클럽은 ‘미국의’ 협회였다. 그러나 이것은 존 랜돌프 클럽이 더 지역적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존 랜돌프 클럽은 수 많은 ‘외국인’ 회원들이 소속되었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가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과 달리, 존 랜돌프 클럽은 지적인 관심에 있어 훨씬 더 광범위한 학제간 범주를 포괄했다.

평균적으로, 존 랜돌프 클럽 회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는 표면적으로는 다문화, 평등주의, 비차별주의를 표방했지만, 그 곳에서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했다. 반면에, 존 랜돌프 클럽은 표면적으로 부르주아적이고, 반평등적이며, 차별적이라고 여겨졌지만, 동시에 어떤 지적인 금기도 없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관대한 협회였다.

게다가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모임은 규모가 크고 인간미가 없었다. 500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반면 존 랜돌프 클럽의 모임은 대체로 150명을 넘지 못했고, 구성원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

나는 존 랜돌프 클럽의 이런 모든 면이 마음에 들었다. (존 랜돌프 클럽의 모임장소는 보통 주요 도시 외곽의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아마 몽펠르랭 소사이어티가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존 랜돌프 클럽의 모든 것이 나와 잘 맞지는 않았고, 그 협회 역시 나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라스바드가 서거한 직후, 존 랜돌프 클럽이 해체된 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는 개인적인 이유이다. 대표 톰 플레밍은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를 상대해 온 모든 사람이 이 점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유는 조직적 다툼에 있었다. 존 랜돌프 클럽의 연례 모임은, 머레이 라스바드와 그의 추종자를 대표하는 리버테리언 연구센터(the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와, 톰 플레밍과 그의 추종자를 대표하는 록포드 연구소(the Rockford Institute)가 번갈아가며 개최했다. 이러한 합의는 불가피하게 무임승차 혐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두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보긴

어렵다.

존 랜돌프 클럽은 뚜렷하게 다른 두 지식인 집단의 연합체였다. 라스바드가 이끄는 아나코 캐피탈리스트, 오스트로-리버테리언 집단은, 대부분 경제학자를 비롯해, 철학자, 법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 보다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나는 이 그룹의 일원이었다. 다른 측면은 보수주의 월간지 크로니클(Chronicles: A Magazine of American Culture)과 그것의 편집자인 톰 플레밍의 동료들이다. 폴 고트프리트는 이 그룹의 일원이었다. 이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어떤 경제학자도 없었으며, 구성원들은 대체로 보다 경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를 포함하여, 문헌학자, 문학가, 문화비평가 등 문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었다.

리버테리언리즘이 논리적으로 많은 문화와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학적으로는 보수주의-부르주아 문화를 핵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통찰에 입각하여, 리버테리언들은 보수주의자와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워싱턴 D.C.의 ‘자유시장’ 추종자 카토 연구소로 대표되는 ‘기득권 리버테리언’과의 단절을 포함했다.

기득권 리버테리언리즘은 이론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제한된 정부로 변모시킨다는 불가능한 목표에 헌신한다. 또 그들은 사회학적인 결함을 가지는데, 반-부르주아적 색채를 띤 소위 ‘코스모폴리탄’ 문화 메시지, 즉 다문화주의, 평등주의, 반권위주의,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쾌락주의와 방탕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에 반대하는 오스트로-리버테리언들은 자유롭고 변영하는 사회의 문화적 요건을 탐구하며 보수주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주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적어도, 나는 내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 즉 고보수주의자(paleo-conservatives)에게 있어 오스트리아학파와 아나코-캐피탈리스트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미국의 조직적인 보수주의를 지배하게 된 네오콘들, 예컨대 워싱턴 D.C.의 미국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혹은 해리티지 재단과의 결별을 의미했다. 고보수주의자들은 네오콘과 목표인 중앙집권화와 ‘경제적으로 효율적

이라 여겨지는' 복지-전쟁 국가에 반대했다. 그것은 사유재산,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핵심 가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태, 이민, 그리고 정부의 정의와 필요성에 있어 고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차이점은, [역주: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중앙집권국가 혹은 UN 등 초국가적 기관 수준에서 시도되어선 안되며, 항상 가장 작은 수준의 사회조직, 즉 가정과 지역사회 수준에서만 시도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할 수 있었다.

고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었으며,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의 분리주의는 자연권(기득권 리버테리언들은 자연권을 매우 금기시함)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력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오스트로-리버테리언과의 협력은, 고보수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무기를 쥐어줄 수 있었다. 적수인 네오콘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들은 경제학적 지식이 미비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롭고 건전한 경제학(오스트리아학파)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 사례를 제외하곤, 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리버테리언들은 보수주의의 문화적 교훈을 기꺼이 배우고자 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리버테리언의 경제학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것이 리버테리언과 보수주의자의 연합인 존 랜돌프 클럽이 붕괴한 궁극적 이유이다.

보수주의는 일관성이 없다

물론 상술한 판단과 그에 따른 교훈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존 랜돌프 클럽에는 한 유명인이 있었다. TV 출연자, 시사평론가,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작가, 수정주의 역사학자인 팻 뷰캐넌(Patrick Buchanan)이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재치라는 개인적 매력을 보유한 동시에, 닉슨 대통령의 연설문 작가로 시작하여 로널드 레이건의 소통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공화당 정치에 매우 깊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팻 뷰캐넌이 존 랜돌프 클럽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협회의 여러 주요 회원과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가졌으며, 외부에서 볼 때 협회의 양대 날개 중 하나인 보수주의 그룹이 이끄는 반문화운동의 두드러진 일부로 여겨졌다. 1992년, 뷰캐넌은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현역 대통령인 조지 부시에게 도전했다. (1996년에 그는 다시 밥 돌 상원의원에 맞서 공화당 대선에 참가했으며, 2000년에는 개혁당(the Reform Party)의 대선후보로 출마했음) 뷰캐넌의 도전은 초기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부시에게 거의 이길 뻔 했으며, 이는 존 랜돌프 클럽에서 상당히 열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뷰캐넌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존 랜돌프 클럽의 두 날개, 즉 리버테리언과 보수주의자들은 과연 무엇이 ‘올바른’ 전략인지에 대해 논하며 공개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뷰캐넌은 표퐁리즘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캠페인을 추구했다. 그는 양당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이른바 보통의 미국인(Middle Americans)에게 호소하고자 했다. 공산주의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이후, 뷰캐넌은 모든 해외 주둔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NATO를 해산하고, UN을 탈퇴하는 (이 점에 대해 그의 네오콘 적들은 뷰캐넌을 ‘고립주의자’라고 비난했음) 비간섭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특히 그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제외하곤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의 종단을 원했으며, 유대계 미국인들의 조직적인 로비가 미치는 비-미국적(un-American)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는 현대 미국에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뷰캐넌은 미국에서의 삶의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차별금지법, 쿼터제를 없애고 싶었다. 그 법들은 본질적으로 백인에게 적대적이며, 특히 백인 남성에게 적대적이다. 더욱이 그는 제3세계 하층민의 대량 이민을 허용하여 강제통합을 초래한 비차별 이민정책, 완곡어법으로 표현하자면 ‘다문화주의’의 종결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를 비롯한 미국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을 폐쇄함으로써 워싱턴 D.C.가 야기하는 ‘문화적 부패’를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뷰캐넌은 널리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파적’ 문화 위기를 강조하는 대신에, 점점 경제적 문제와 위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경제학 지식은 경제를 논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경제학 지식의 결핍은 뷰캐넌의 가장 나쁜 면모였으나, 그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뷰캐넌은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적 민족주의의 일환인 ‘좌파적’ 경제계획을 주창하였다. 그는 ‘필수적인’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해외 경쟁으로부터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관세의 필요를 주장했으며, 최저임금, 실업보험, 사회복지, 의료보험 등 미국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복지 계획을 보호하고 확대함으로써 보통의 미국인들을 보살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내가 예전에 존 랜돌프 클럽의 연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적 우파와 경제적 좌파를 혼합하려는 뷰캐넌의 계획에는 이론적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복지 국가의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문화적 정신을 복원시킬 수 없으며, 가족과 공동체를 강화할 수도 없다. 국가 제도가 문화적 부패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보호주의 관세는 미국인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가난하게만 만들 뿐이다. 경제적 민족주의 계획은 (우리와 우리의 목적에 있어) 쓸모없는 프롤레타리아를 끌어들이면서,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필수적인 계층인 부르주아를 소외시킨다. 그러나 보수주의 그룹은 그들의 영웅인 뷰캐넌에 대한 이 비판에 맞서 그를 방어하려고만 했다.

뷰캐넌에 대한 나의 개인적 우정과 충성심이라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략이 투표에서 수적으로 실패했음이 명확해지자, 나는 이성적 판단이 더 널리 퍼지길 기대했다. 선거에서의 패배 이후, 존 랜돌프 클럽의 보수주의자들이 나의 비판이 ‘본질적인’ 비평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즉, 내가 보수주의 반문화 혁명이라는 존 랜돌프 클럽과 뷰캐넌의 목표를 비난하거나 그것과 거리를 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경제학적인 근본요소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 공고히하려 했음을 그들이 알아주길 바랐다. 나는 단지 뷰캐넌이 선택한 전략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며 비효율적임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뷰캐넌과 그의 계획 사이의 지적인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려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자유주의 전략에 필요한 것

상기한 경험으로 하여금 나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이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 어느정도 파악했던 교훈이 보다 확고해졌다. 정치인을 신뢰해선 안되고, 정치에 정신이 팔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수 많은 개인적인 자질에도 불구하고, 결국 뷰캐넌은 사회변화의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정부를 신뢰하는 정치인이었다. 둘째, 경제학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대체로 지속적인 지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배웠다. 행동의 논리학인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여왕이다. 사회적 현실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코 충분하진 않지만, 필수적이며 필요 불가결하다. 최소한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이 『경제학의 교훈』(Economics in One Lesson)에서 설명한 만큼의 지식도 없다면, 사람들은 역사적 현상에 대한 설명 및 해석에 있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재산과 자유 협회가 정치인, 정부관료, 선전꾼에게 감탄과 경외를 보내기 보다는, 그들을 조롱과 경멸, 별거벗은 임금님, 혹은 농담의 대상 정도로만 치부하는 동시에, 경제학에 무지한 모든 사람 역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존 랜돌프 클럽의 해체는, 그 협회가 추구한 사상들이 사라졌거나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같은 사상과 이상을 추구하는 싱크탱크, 루트비히 폰 미세스 연구소(Ludwig von Mises Institute)가 크게 성장했다. 미세스 연구소는 1982년에 머레이 라스바드를 학장으로 삼아 설립되었는데, 라스바드를 비롯한 모든 미세스 연구소 구성원이 아나코-캐피탈리스트이자 오스트리아학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는 싱크탱크로 출발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했다. 나는 미세스 연구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류 락웰(Lew Rockwell)은 워싱턴 D.C.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앨라배마 주 어번

(Auburn)으로 거점을 옮기며 제한된 정부라는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연히 인정하였고, 대신 아나코-캐피탈리즘의 비타협적인 옹호자를 표방하는 최초이자 유일의 자유시장 싱크탱크로 변모시켰다. 아나코-캐피탈리즘은 그 이름에 대한 편협하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달리, 인간행동학적-논리적 방법론을 엄밀하게 추구함에 있어 미제스 정신에 매우 충실한 것이며, 인간행동학의 궁극적인 결론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회는 처음에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지만, 락웰의 뛰어난 지적인 기업가정신 덕분에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 도달범위 및 영향력에 있어 훨씬 더 부유한 ‘제한된 정부’ 경쟁자, 예컨대 카토 연구소 등을 손 쉽게 능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경제적 사안에 보다 세밀하게 초점을 맞춘 미제스 연구소 외에도, 존 랜돌프 클럽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과 그 해체를 계기로 하여, 류 락웰은 1999년에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에 학제간, 문화적 차원을 더한 반-국가, 반-전쟁, 친-시장 웹사이트인 LewRockwell.com 을 설립했다. 이 웹사이트는 미제스 연구소 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으며, 지금의 론 폴 운동을 위한 지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미제스 연구소 혹은 류락웰닷컴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싱크탱크 혹은 또 다른 논설문 출판사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반국가주의 지적 반문화의 발전에 새로운 중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미제스 연구소와 류락웰닷컴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존 랜돌프 클럽의 해체와 함께 사라진 것은, 자유주의 명분을 위해 헌신하는 지식인 사회였다. 그리고 모든 지적 운동은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지인, 친구, 전우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장소, 협회가 필요하다. 재산과 자유 협회는 이를 목표로 하였다.

나는 세계 각지에서 온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비타협적이며 검열되지 않은 지적 급진주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한 협회는 국제적이며, 학제적이고, 부르주아적이며, 초대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엘리트주의 그룹이 되어야 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범죄자들, 사기꾼들, 돌팔이들, 그리고 미치

광인들이 구축한 연막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2005년에, 여기 터키 보드룸의 프린세스 카리아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나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의 매력에 감명받아 나는 재산과 자유 협회를 위한 살롱과 만남장소로서 프린세스 카리아 호텔을 선택하였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살롱(salon)은 “주최자의 고무적인 영향 하에, 친교활동을 즐기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지식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지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만 제외하도록 하자. 나의 아내이자 미세스주의 학자인 굴친 임레(Gülçin İmre)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한 것들이 이 재산과 자유 협회에 있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 웅장하고 광대한 연례 살롱의 주최자가 되어 그것을 매력적이고 걸출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다섯 번째 만남이 우리의 목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